

# 니체의 ‘개념비판’의 의미: 신을 죽이는 길인가, 신을 살리는 길인가?- 삶철학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교육철학전공  
엄인주

## <요약문>

니체철학을 삶-철학 이라고 명명할 만큼 삶을 중요시하는 철학자로 언급되고 있다. 지식 때문에 삶이 희생당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는 데에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니체의 삶철학을 지식(개념)과 관련지어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니체는 개념을 미라(Begriffs- Mumien)로 취급하면서 개념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이 때 개념이 ‘우상’이라면 무엇이 ‘진짜’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며, 니체는 ‘우상’의 대척점에 있는 것을 진리 혹은 신이었던 전통형이상학과 달리 삶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있다. 그러나 니체가 신의 자리를 삶으로 대체한 것인지 아니면 삶의 궁극적 의미가 신이라는 말을 하는 것인지는 분석을 요한다. 여기에는, 믿음을 앞세우고 신앙으로 추구하는 신은 우상이라는 니체의 전제가 깔려있다. 니체에게 신은, 명제의 정합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존재를 드러내는 것, 즉 논리적 가정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삶이라는 개념비판의 주제는 삶이라는 개념에 보편자로서의 삶이 들어있는 것으로 취급되는가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전달의 방법적 원리로서의 개념파괴의 문제이다. 니체의 삶철학에 근거해서 개념을 믿지 말라는 말을 ‘개념의 진위의 기준을 삶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는 ‘개념’과 ‘삶’의 관련을 횡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념과 삶을 서로 분리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개념을 버리고 삶으로 대치함으로써 이 때의 삶은 삶의 의미와는 무관한 것이 되게 한다. 이 때 삶은 신(보편자)을 대체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신을 죽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는 달리 ‘개념은 삶의 궁극적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그 궁극적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는 ‘개념’과 ‘삶’ 사이의 관련을 종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념’과 ‘삶’을 서로 다른 것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개념이 없이는 삶의 의미를 풍부하게 할 수 없다거나 더욱 그 의미를 심화시켜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개념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삶의 궁극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으로, 신을 살려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칸트의 선형철학을 개념과 이념의 관계로 해석한 데에 의지한다. 니체의 개념비판은, 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매체라는 이유 때문이며 바로 ‘그 개념’을 파괴하는 것으로 신을 살려낼 수 있다는 역설적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념을 진리로 믿어서는 안 되며 개념의 파괴(의미추구)로 진리를 드러나는 것이라는 니체의 개념비판의 의미는 신은 우리가 드러내면 있는 것이고 드러내지 않으면 없는 것이라는 말의 변주이다.

주요어: 니체, 칸트, 개념, 진리, 삶, 신, 이념, 절대적 보편자, 개별자, 초월, 내재

## I. 서론

우리가 흔하게 듣는 ‘지식나부랭이 때문에 귀한 삶이 희생되어서는 안되며 실천 없는 지식따위는 없는 만 못하다’는 말의 근원을 추적해 볼 때 고대 그리스의 철학적 논의에 그 뿌리가 있다면, 니체의 철학에서는 그 말을 무성하게 띄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니체는 ‘삶-실천’ 철학자라는 모토를 달고 있을 만큼 삶을 중요시하고 실천을 중요시 하는 철학자로 언급되고 있다. 이 점에서 위의 회자되고 있는 말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해준 장본인인 니체의 삶-실천 철학을 지식(개념)과 관련지어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는 모든 슬로건이 그렇듯이 그럴듯하게 시사해주는 바가 많아 보이지만 그 의미를 조금만 더 캐어 들어가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알기 어려워진다. 귀한 삶이 희생되는 것이 지식나부랭이 때문이라면 지식나부랭이를 걷어치우고 삶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실천 없는 지식이 없는 만 못하다고 할 때 없는 만 못한 지식 말고 무엇을 실천하자는 것인지 슬로건만으로는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 없다. 단지 여기서는 지식이 삶에 방해가 되며, 실천과 지식이 따로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하는 분위기만을 느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통념적으로 지식을 비판하는 데에 회자되고 있는 슬로건을 풍부하게 한 장본인인 니체의 '개념비판'을 분석해 봄으로서 그 슬로건이 가지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것이다.

니체는 개념을 원래 개념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의 시체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개념을 이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비판한다. 이 때 시체로서의 개념이 아닌 원래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게 된다. 니체는 주지하다시피 절대적 실재니 진리, 신과 같은 초월성을 지니는 것에 대하여 그런 것은 없다고 한다. 그러하다면 이러한 초월적 존재들의 자리에 두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하여 많은 니체 철학자들은 삶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니체 철학은 삶 철학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그러나 니체 철학의 모토가 되어 있는 삶철학의 의미는 그다지 명확한 것이 아니다. 명확한 것은 니체가 전통적 형이상학의 가치 근원인 절대자나 절대선, 진리, 신등을 부정하는 데에 대하여 그 대안적 위치에 삶을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니체 철학에서 절대적 의미를 갖는 것일 것이라는 정도이다. 정확하게 니체가 삶-대지를 강조하고는 있다는 점에서 많은 후대 철학자들이 니체철학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사용은 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따지고 보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그러하다면 니체가 말하는 삶철학을 어떻게 이해야 하는가? 니체가 절대적인 것, 초월성을 지니는 것을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초월적 의미가 없는 것인가? 니체의 철학을 내재성의 철학이라고도 하는 것은 초월성에 대립하는 내재성으로 해석된다. 삶철학은 삶이 진리를 내재하고 있다는 것인가? 내재하고 있는데 왜 초월은 말할 수 없는가? 즉 초월과 내재는 대립 관계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가하는 의문들이 따라 나온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삶의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 통념처럼 대립의 관계로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글은 니체의 삶철학에서 삶이라는 개념을 비판하는 일로서의 개념과 삶을 관련짓는 방식은 즉, 개념과 삶을 대안적 위치에 두는 경우와 개념과 삶을 종적으로 관련짓는 경우 그 삶의 의미는 신 혹은 진리와 같은 초월자를 살려내는 것으로도 죽이는 것으로도 해석될 가능성이 있도록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따라서 삶철학을 예시로 개념비판을 함으로서 니체에게 있어서 개념비판, 즉 니체의 용어로는 파괴가 초월자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에 갖는 역할을 드러낼 것이다.

## II. 삶철학에서 개념의 한계: 대안으로서의 삶 - 신을 죽이는 길

우리가 흔히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하듯이 개념을 갖는 것과 그 개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현들은 문자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니체 또한 니체의 저서 『우상의 황혼』에서 니체는 '철학에서의 이성'이라는 주제를 하나의 장(KGW VI 3, 96-102)을 할애해 개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펼쳐가고 있다.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수천년 동안 이용했던 모든 것은 죄다 **개념**- 미라들(Begriffs-Mumien)이었다: **실제의 것은** 어느것도 그들의 손아귀에서 살아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개념을 이상처럼 숭배하는 이런 철학자 제씨들. 이들은 숭배하면서 죽여버렸고, 박제로 만들어버렸다...

개념을 왜 미라라고 하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개념은 니체가 말하는 실제, 존재자와는 마치 미라처럼 거

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천년 동안 존재하지만 미래를 보고 즉 숨결도 움직임도 살도 모두 사라진 그야말로 뼈로 원래 그 사람의 형체만을 겨우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원래의 그 사람을 상상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 철학자들은 그 미래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아무리 이리저리 상상을 해보고 살려내려고 한다고 해 보아야 원래의 살아있던 상태로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으로, 니체가 개념을 근거로 실제 혹은 존재자를 추구하는 철학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죽은 것이지만 살아있던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살아있었을 때의 모습을 알려면 미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개념이라는 비유는 유효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니체가 죽은 미래와 같은 개념으로 '살려내고자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는 것이다. 개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인 '살려내고자 하는 것'에 니체는 '실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원래 있던 실제, 진짜 있던 것이 무엇인가가 문제가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니체가 절대자 즉 신이나 선, 초월자들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적할만한 가치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본다면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니체는 삶이나 대지를 인간과 자연의 근간으로 본다는 점에서 삶과 대지를 같은 가치로 취급한다고 할 수 있다.

형제들이여, 너희들이 지니고 있는 덕의 힘을 기울여 이 대지에 충실하라! 너희들이 베푸는 사랑과 너희들의 지식으로 하여금 이 대지의 뜻에 이바지하도록 하라! 나, 이렇게 너희들에게 부탁하며 간청하노라.(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세상. p. 124)

따라서 니체철학은 삶철학 혹은 대지철학이라는 제목을 달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목만을 가지고는 삶이 니체철학의 제반 근거가 될 것이라는 것뿐 그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은 없다. 따라서 개념을 통해 알아내고자 하는 진짜로서 삶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나 벌어지고 있는 삶을 표현한 것이 개념이라고 할 때 이러한 개념들은 사실은 언제 어떻게 무의미해 질지 모르는 것이다. 역사가 진리가 변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어떠한 것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다못해 한 마을 안에서 절대 절명으로 지켜지는 규칙들도 그 마을을 벗어나면 틀린 것이 되며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들에 의지하여 자신의 삶을 담보했다가는 사기당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니체에게 자신의 사고나 삶을 남들이 해놓은 말이나 글인 개념에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사기당해도 좋다고 담보를 맡기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하다고 해서 니체가 신은 없다는 것은 아니며 (죽었다와 없다는 것은 다르다) 이는 이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격리된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니체가 중요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삶이다. 그러하다면 니체에게 개념이 말하려는 '그것'은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나 삶이다. 이 말 저말 다 허망한 것이 되기 쉽지만 삶만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며 허망한 말들을 잠재우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니체 연구자들은 개념이 진짜 의미하는 것으로 삶을 내세우면서 전통형이상학에서 내세우던 초월적인 신, 절대선 대신 삶을 위치하고자 한다.

인식과 지식은 삶에 봉사해야지 삶을 질식시켜서는 안된다...니체가 학문을 비판하는 근원적 목적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비학문적인 삶의 세계의 복원과 새로운 삶의 방식의 고안에 있다. 이것은 탈자연화된 세계, 즉 이문화된 세계와 삶을 극복해 다시 '자연화시키는 것'이다.(이상엽 2003: 461)

이 저자의 해석에 의하면 니체가 지식을 삶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지식이 삶에 봉사해야하는데 삶을 오히려 질식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니체의 학문비판은 삶을 비학문적 삶의 세계로 복원시키는 데에 기여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지식을 벗어나서 삶을 자연화 시켜야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삶은 지식의 대안으로 해석된다.

니체는 육체나 생리학적 삶의 계기와 분리된 순수한 정신이라는 것은 실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러한 순수 정신을 가정하는 강박증적인 퓨리턴주의자체가 이미 이 세상, 자연, 현실성을 부정하는 철학이라고 말한다. 즉 순수정신, 이성의 동일성이라는 개념은 현실의 삶을 부정하는 염세주의에 근거한다...(손경민, 2008: 215)

이 글에서는 니체의 삶철학이 순수정신과 대립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니체는 순수정신과 대립되는 가치로 삶을 말한다는 것으로 삶은 현실성을 긍정하는 것이며 순수정신은 삶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과연 순수정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삶을 부정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순수정신과 삶은 분리된 것으로 삶을 긍정하려면 순수정신은 부정해야하는가가 문제이다. 삶을 긍정하기 위해 순수정신을 인정해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해석에도 니체가 순수정신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을 순수정신 말고 삶이라는 대안으로 해석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순수정신이 삶 안에 들어 있으며 삶을 산다고 그 순수정신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하려고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삶과 분리된 채로 순수정신이 마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아예 현실적 삶밖에는 없다고 해석해서도 안된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삶뿐이라는 말은 맞지만 그러하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삶을 현실적인 삶으로 만드는 것도 순수정신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이기 때문이다. 삶자체는 의미가 아니며, 삶을 그러한 의미로 볼 때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삶이란 그 삶을 특별한 관점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삶의 기술로서의 (니체의) 철학 개념은 '진리를 발견하는 기술'이라는 철학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식 정의를 재검토하게 한다. 이 정의가 불충분한 것은 그것이 진리를 삶보다도 우선시하기 때문이고, 진리가 해석자의 삶과 힘에의 의지에 의해서 창조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는 점을 도외시하기 때문이다. (백승영 2005: 107)

이글은 니체의 삶 철학을 진리의 대척점에 위치시키면서 진리보다 삶을 중요시한다고 하고 있다. 삶에 진리가 있거나 진리는 삶 속에 있다는 말은 흔히 하지만 진리보다 삶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삶을 사는 것이 따로 있고 진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취급할 때에나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진리(여기서는 학문, 이성, 개념등 지성의 총칭으로 쓰인다)와 무관하게 살아지는 것이 아니며 바로 그 삶의 의미(진리)로 삶을 '그러한 삶'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 이일 저일 하는 삶밖에 없으며 바로 이일 저일 하면서 사는 삶의 의미가 바로 삶을 그러한 삶으로 의미 지워 주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의미로 규정되기 전의 활동으로 점철된 삶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불확정적 활동의 연속이지 삶이라고 하기 곤란할지도 모른다.

위의 인용된 몇 니체연구자들은 하나같이 개념이 원래 추구하려던 것과 삶을 사실적으로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개념이 나아갈 방향을 삶인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삶이라는 것마저도 삶의 의미를 추구하지 않고는 드러나지 않는 허망한 활동들로, 전통형이상학이 개념이 진짜 알려고 하는 것인 초월자 혹은 보편자의 자리에 삶을 위치시키는 것은 삶자체에 기준이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특수자 인정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니체 자신의 명확한 언급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스비극시대의 철학』에서 그리스 철학자들의 철학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존재-존재의 본질은 바로 존재이다-개념으로 부터는 결코 존재의 실존을 추론 할 수 없다... '낱말(개념-필자첨부)들은 오직 사물을 상호간의 관계와 우리와 이 사물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상징일 뿐이며 절대적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KGW 3, p.407-8)

절대존재가 있다면, 어떠한 다수성도 있을 수 없다. 절대적 다수성이 있다면, 어떤 통일성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개념들로는 사물들의 심장을 결코 건드릴 수 없으며 또 실제의 매듭을 풀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파르메니데스와 제논은 개념들의 진리와 보편타당성을 고집하면서, 직관적 세계를 참되고 보편타당한 개념들의 반대로서 비논리적이고 모순된 것의 객관화라고 비난한

다. (KGW 3, p.411)

이와 같이 존재의 본질을 존재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상 세계나 만물의 존재자체가 ‘그 의미’를 보장한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그 의미는 저절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며 끝없이 추구하고 드러내려고 노력할 때 조금씩 알려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삶 자체에 기준이 있다는 말 또한 삶의 의미와 무관하게, 즉 개념의 논리적 가정을 추구하는 것과 무관하게 삶이 ‘그 의미’를 보장한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저절로 삶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다. 또한 보편타당성이나 통일성이라는 것을 지닌 일자는 없는 것으로 다자가 이를 증명하는 데 개념은 자꾸 보편타당성이나 통일성이 있는 것처럼 방향을 잡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왜 개념이 보편자를 상징하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언가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만약 보편성이나 통일성을 지향하지 않고 제각각의 개별자를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는, 그 개별자의 설명이 맞다는 근거를 보장할 길이 없어지며 맞는가 틀리는가의 기준 자체가 없어진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다자, 즉 개별자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으로 설명하려는 것 자체가 기준을 내재하고 있다는 설명은 기준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과 같다.

니체가 개념과 삶을 주장한다고 하여서 삶과 개념의 관련을 개념과 무관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위의 의미로 그릇되다. 그러나 개념이 곧바로 삶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개념과 삶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파괴의 대상인 개념과 삶을 무관하게 관련짓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개념과 삶을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에만 니체의 삶철학은 니체가 의도한 대로 삶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주제로 하는 철학인 동시에 그것이 삶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말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니체 이후, 삶을 추상한 것이 개념이므로 개념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진리나 절대적 선, 신과는 더욱 먼 방향으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개념은 이 세계를 혹은 삶이나 현상을 추상하여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당연하게도 비판의 타겟이 되고 있는 것처럼 추상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그 개념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 자체를 그대로 표현할 수 없는 원천적인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개념이 표현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는 것이며 이를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추상하는 순간 그 개념은 추상하고자 한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개념을 왜 인류는 대대로 의지하면서 모든 세계나 삶을 개념으로밖에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니체마저도 개념비판을 개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개념이 아니고는 우리가 세계를 공유하고 삶을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세계, 바로 그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개념으로 표현된 세계가 아닌 세계가 있다면 이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 그 세계를 설명하는 데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념이 완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비판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없다. 바로 이에 대한 논의는 결국 절대자니, 신이니 하는 세계를 설명하는 궁극적 원인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여기서 니체의 ‘신’과 ‘개념’이 조우한다. 이 세계를 설명하는 데에 절대적인 진리란 없는 것이며, 그것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탐구하여 드러냄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논리적 가정으로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논리적 가정을 추구하는 일은 신을 찾는 일에 다름 아니며 이는 개념을 받아들임으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파괴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이 세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보장하는 준거가 되는 절대적 진리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있는 것은 그 세계를 불완전하게 설명해 놓은 개념뿐이다. 우리는 개념을 시작으로 하여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니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타인이 만들어 놓은 것, 혹은 이해해 놓은 것으로 나의 인생을 담보로 하여 그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믿어서는 않된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세계는 그렇게 남의 말을 믿음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남의 말인

개념에 의존하여 그 말을 끝이끝대로 믿고 신뢰하여 인생을 사는 경우 그 말이 진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도박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개념의 진위에 잣대가 되는 것을 탐구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나며 그 말을 믿은 대로 행동하는 것에 바쁘게 살아야한다. 그러나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행동이전의 지침이 거짓인 것을 실천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란...! 니체에게 삶이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의식주에 바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하는 안테나를 항상 달고 사는 것이며 이는 그 진위의 여부를 탐구하는 일에 바쳐진 삶에 다름이 아니다. 니체의 표현대로 남이 해놓은 개념으로 표현된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시체라는 것이다. 그 시체를 아무리 잡고 살살이 훑어보아야 진리는 살아나지 않으며 그것은 이미 진리를 떠난 것이다. 니체는 개념을 문구 그대로 믿고 말아버리는 행위를 비판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개념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사장시키는 것이 되고 말며 시체를 안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니체가 말하는 진위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일, 논리적 가정을 탐구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신을 죽이는 일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때의 개념은 殺神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된다. 우리에게 진리의 기준을 의심하지 않고 남이 진리라고 하는 말을 믿는 것, 이것은 니체에게는 신에게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 즉 신을 죽이는 일에 해당한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의심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한 편안한 선택이 결국은 자신의 삶을 담보로 한 도박에 해당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니체는 사람들이 개념을 가지게 된 것이 삶으로 자동 표현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분노하였다. 소크라테스의 위대한 삶을 글로 표현한 플라톤을 비판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소크라테스의 위대한 삶을 추상하여 글로 남긴 플라톤의 저서, 즉 명제화된 지식은 명제화되는 순간 플라톤에 의해 추상의 오류를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우리가 플라톤이 명제화한 지식을 통해 소크라테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데 초점을 둔 비판이다. 그러나 그 비판 이면에는 추상으로 인해 우리가 그나마 소크라테스의 삶을 조금이나마 상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는 것은 간과하고 있다. 가능성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면서 오류만을 비판하는 것은 있던 가능성마저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하며 신에게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이다.

### III. 삶철학에서 개념의 가능성: 의미로서의 ‘삶’ -신을 살리는 길

칸트에게 있어서 인간의 인식은 어디까지나 ‘개념을 통한 인식’을 가리킨다. 감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감각적관들은, 그 자체로서는 인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정형의 것들이다. 인식이 성립하려면 그 무정형의 것을 개념으로 규정하는 작용이 일어나야 한다. 여기서 규정이라는 것은 특정한 술어를 대상에 적용하는 인식행위를 가리킨다. 규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곧 우리가 특정한 술어를 채택함과 동시에 다른 술어들을 배제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규정이라는 것은 보편적 성격을 지니는 개념(술어)에 비추어 대상을 인식하는 일이며, 이 점에서 규정은 곧 개념을 매체로 하는 ‘추상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의 인식은 본질상 이와 같은 추상작용을 조건으로 하여 성립하며,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계를 지닌다. (신춘호 2012: )

개념이 가지는 추상의 힘에 의지해 우리의 마음은 못할 것이 없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신에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개념은 흔히 조롱받는 말장난이 아니며 신에게 가려면 의지해야하는 유일한 힘일지도 모른다. 니체가 개념을 미라로 비유하여 비판할 때, 우리는 이 미라가 원래 실제 하던 그 사람을 상상으로 살려낼 유일한 것이라는 것 또한 놓치지 말아야한다. 미라가 실제의 그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 급급하기 보다는 미라를 찬찬히 보고 지금은 죽어서 숨을 쉬지 못하지만 어떻게 호흡을 했을지, 움직이지 못하지만 다리가 얼마나 길어서 보폭이 얼마나 되었을지 여자인

지 남자인지 그에 따른 헤어스타일은 어떠했을지 온갖 것을 상상하는 데에 있어 이 미라말고는 다른 곳에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개념이 수천년 이어져 오면서 원래 보여주려고 했던 실제의 살이 떨어져나가고 호흡은 남아있을 리 없으며 표정하나 짓지 못하는 앙상한 뼈채로 있는 것이 다이지만 이 개념에 의지하지 않고는 원래 그 개념이 표현하려고 하고 있던, 간직하고 있는 실체라는 것은 절대 상상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개념에 의지해 공부를 한다는 일은 죽은 시체를 잡고 씨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개념이 보여주려고 하는 실체와 내가 보고 있는 개념은 너무나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자를 여자로 오인하기도 하고 희미하게 웃는 것이 아닐까하는 정도밖에는 추측해 볼 수 없지만 미라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듯이, 개념을 통한 실체에 다가가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잘못된 오류도 저지르고 완전히 다른 오해를 이해로 착각하는 일이 벌어진다하더라도 이런 오해조차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개념이라는 미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라가 실체와는 전혀 다른 것이 되었으므로 미라말고 다른 것에 의존할 수 있는가? 실체와 미라 사이의 엄청난 간극 때문에 서로가 다른 것이라고 부인하기 보다는, 있는 미라에 기대어 어떻게라도 어마무시하게 놓인 간극을 좁혀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데에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원래의 것, 총체는 그대로 우리에게 이해되거나 전달되거나 보존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수천년간 이어져온 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추상한 결과인 개념을 통해서 밖에는, ‘표현하려고 한 실체’에게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나마 이렇게 개념이라는 총체의 미라가 있기에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을 함께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그나마라는 말이 무색하게 개념이 정립되는 데에는, 관심을 가지고 시도한 많은 인류의 추상이라는 고도의 정신작용이 집적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개념이라는 미라는 실제 미라가 원래 사람의 시체인 것과는 달리, 인류의 추상이라는 정신작용으로 쌓아올린 창조물이다. 니체가 말하듯이 철학자들이 수천년 동안 매달려온 개념을 미라라고 비웃을지, 아니면 그 개념이 수천년을 내려올 수 있었던 데에 대한 감사와 그 개념을 빌미로 하여 최대한 숨결을 불어넣고 살을 붙여나가는 작업을 통해 되살려내려고 해야 할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개념 하나에 의지해서 실체를 이해하려고 하기에는 겨사씨 하나로 산을 만들어내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씨 하나가 이 세상 전체를 만들어내야 하는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라면 미라의 비유는 중요한 지적이다. 그러나 개념을 통해서 실체를 이해한다는 어려움이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미라 자체가 원래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시체이지 원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시체로는 알 수 없으니 다른 것을 찾아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나마 존재한 미라마저 버림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 사람을 살려내겠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과 같다. 오히려 우리가 강조해야할 것은 개념을 통해 이해한다고 한 것이 잘못된 이해는 아니었는지를 끊임없이 반추해보는 일을 하는 것이다. 원래의 미라로 원래의 사람을 상상하는 것은 인류 모두가 뛰어들어 노력한다 해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학교에서 인류는 모두 수천년된 개념에 매달려 이를 살려내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 덕에 그나마 우리에게 이어지는 미라를 보존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수천년된 개념에 숨결을 불어넣고 살을 붙이고 정교하게 살려내는 일이다. 그 일이 힘들다고 더 쉬운 일에 기대보아야 그야말로 헛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개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파악하는 것을 그릇되게 안내하고 있는 방해물로 해석되는 경우 우리 인류는 왜 아직까지도 개념에 의존하고 있는가, 아니 개념을 치열하게 비판하는 니체마저도 개념으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류의 많은 유산은 개념으로 존재한다, 즉 책이나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하다면 왜 위에서 언급한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개념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가하는 것은 개념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도록 해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념은 삶을 설명하기 위해 추상한 그 추상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설명하려고 한 ‘바로 그것’은 아니며 그로 인해 당연하게도 한계를 태어나면서부터 배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다고 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개념을 그것을 설명하는 데에 수단으로 삼을

필요조차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 인류에게는 아직은 개념이라는 추상의 결과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삶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며 오히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을 추상하여 어떻게 개념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었고, 이 개념으로 인류가 삶이라는 것을 공유하는 것인지 신비하지 않을 수 없다.

칸트에 의하면, '이해가 규칙(즉 개념)을 통하여 현상을 통일하는 능력이라면, 이성 은 이해의 여러 규칙을 원리하에 통일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이성은 경험과 직접적인 관련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통해서만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통일하는 일을 통해서만 경험과 관련을 지닌다. (신춘호 2010: 59)

이러한 개념은 그 신비함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한계를 태어나면서부터 배태하고 있다는 데에 비극이 있다. 우리는 마치 삶을 설명한 개념을 마치 설명하고자 한 바로 그 삶으로 믿어버린다는 데에 있다. 우리가 설명하고자 한 것, 그것과 설명을 하고 있는 개념은 절대 일치할 수 없는 원초적 간극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삶은 우리에게 보이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을 설명하는 일은 활동의 형태와 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는 역설적으로 가능성이기도 하여서 활동의 형태로 드러난 삶만이 아닌 '의미로서의 삶' 또한 설명이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삶이 삶의 다가 아니라는 점, 그 이면도 존재한다는 것은 아무리 시각적으로 실험을 하여 보여준다고 해도 개념이 할 수 있는 일을 절대 커버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개념이 가지는 가능성은, 그 한계에 매달려서 인류의 역적으로 치부되고 있는 지금의 사태와는 달리, 우리가 유일하게 매달려 가꾸고 돌보아야할 것이 될지 모른다. 니체는 이와 같은 개념의 한계와 가능성의 간극을 엄청난 심연으로 묘사하고 있다. 아니, 차라리 개념이 인간을 신과 동물 사이에서 어떤 존재가 되도록 하는가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에게 가는 길을 선택한 인간과, 동물이기를 선택한 인간의 차이는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여 그 가능성과의 심연을 얼마만큼 메꾸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니체가 개념의 존재자체를 무시해야한다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한다. 그러하다면 무엇을 주장하기 위해 개념을 비판하는가? 니체는 개념 자체를 비판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기 보다는 개념이해에 비판의 초점이 있다. 니체가 개념을 비판하면서 스스로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조금만 예민한 독자라면 느낄 수 있듯이 개념을 파괴하는 방법으로서의 접근이다. 여기서 니체가 생각하는 '신'과 '개념비판'이 조우한다.

니체는 왜 신이니 선, 진리를 거부하는 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것은 최후의 것과 최초의 것을 혼동하는 데에 근거한다. 그들은 마지막에 오는 것을-유감천만이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결코 나타나지 않아야 하기에!-'최고의 개념들'을, 달리 말하면 가장 일반적인 것들, 가장 공허한 개념들, 증발해버린 사실성의 마지막 연기를 시작에 놓고 그리고 시작으로서 놓는다...여기서 교훈: 최고서열의 것은 스스로가 원인 causa sui이어야만 한다. 다른 어떤 것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반박으로, 그 가치를 의심하게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최상의 모든 개념, 존재자, 무조건적인 것, 선, 진리, 완전-이것들은 전부 생겨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자기원인이 없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것들 모두가 서로 다를 수는 없으며, 서로 모순될 수는 없다...이런식으로 철학자들은 '신'이라는 그들의 놀라운 개념을 갖게 된 것이다...최후의 것, 가장 빈약한 것, 가장 공허한 것이 최초의 것으로, 원인 그 자체로서, 최고로 실제적인 존재자라고 규정된다...인류가 병든 망상가의 이런 미친짓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만 했다는 것! -인류는 이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KGW 15. 우상의 황혼 99)

이 말을 거꾸로 이해하면 니체는 선, 진리, 완전 이러한 최고의 개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초부터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논리적 이전으로서의 근원을 탐구하는 것은 이미 있는 현상의 근원을 추적하는 것으로, 그 현상의 논리적 전제들을 들추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선, 진리, 완전 이러한 최고의 개념은 어떤 실체로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다. 단지 그 가정을 추적하여 드러내는 것만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다. 바로 이때 그 가정들

끝까지 추적하여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진리탐구에 다름 아니며 이 때 절대적 진리의 유무, 혹은 존재에 대한 논의들은 그것을 실체로 보면 없는 것이며 그것이 탐구에 의하여 드러나는 것이라면 드러나는 만큼 있는 것이다. 이러하게 그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여서 모든 설명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 당연하게도 우리는 그러한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어떻게 가능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니체는 이에 대하여 그를 대표하는 방법-파괴를 내어준다. 파괴라는 용어가 주는 일상적 의미와 맞물려 그의 철학은 후대 철학자들에 의해 망치를 든 철학, 해체의 철학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파괴라는 방법적 원리는 그러한 간단하게 해체를 이끄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그의 '파괴'를 설명하기 위한 시도를 하려고 하면 그 시작부터 이러한 어려움은 고개를 내미는 데, 이는 니체가 파괴하려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부터가 분명하지 않으며 파괴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를 그의 이론을 통해서 찾아내야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니체가 말하는 파괴는 칼 막스와 같이 기존의 제도를 파괴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하다면 무엇을 파괴하자는 것인가? 기존의 가치를 파괴하자는 것이다. (Kauffman 1974: 111) 막스 또한 그렇게 말하겠지만 무엇인가를 파괴하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며 파괴 후에 새로운 것을 세우고자함이다. 그러하다면 니체가 기존의 가치를 파괴하자는 것은 새로운 가치를 세우자는 말을 하려는 것이다. 가치를 없애자는 말을 하는 것과 새로운 가치를 세우자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가치를 없애자는 말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치란 없다는 것으로 이 세계를 혼란으로 빠뜨린다. 그러나 가치를 새롭게 하자는 것은 기존의 것을 부수고 그 자리에 보다 나은 것을 세우고자 함이다. 니체가 가치 해체를 주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치제정립을 주장하는 것인가는 그의 말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두 경우로 해석될 수 있는 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Kauffmann, 1974: 100) 따라서 그가 하고자 한 말이 무엇이었는가는 그의 철학이 이 세계를 설명하는 근원으로 무엇을 내세우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 그가 정초나 절대적 진리라는 것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라면 당연하게도 그의 파괴는 해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니체가 없다고 하는 정초나 신은 기존의 해석과 같은 실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아예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한다. 그가 말하는 가치의 근원인 신이니, 정초니, 실재니 하는 것은 기존 가치의 파괴를 통해 새로운 가치로 재정립되는 과정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아야한다. 이 때 말하는 가치 재정립은 어떻게 가능한가? 가치를 어떻게 파괴한다는 것인가? 니체 본인은 당연하게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하므로 설명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을지 몰라도 독자로서는 그냥 지나쳐도 되는 일이 아니다. 기존의 신이라는 가치를 파괴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수거나 기존의 학교의 가치를 파괴하기 위하여 학교를 부수자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파괴를 하는 데에 사용한 것은 기존의 가치라는 이름으로 내려오는 '개념'들이었다. 당연하게도 니체의 저작들은 그 성과물이며 우리는 그가 파괴를 통해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세워나가는가를 살펴 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니체가 개념을 파괴한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당연하게도 그의 저작들에서 그가 정확하게 개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파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정확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니체의 개념에 대한 해석이 가지는 오해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해석은 칸트의 선형철학에 대한 특별한 해석인 (이흥우 2006). 『대승기신론 통석』에서 볼 수 있다.

칸트에서 이념은 개념(또는 지식)의 '논리적 가정'입니다. 이점을 앞의 질문(이념은 있는가-필자첨부)에 대한 대답으로 풀이하자면, 이념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든가 인식을 한다는 말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념이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됩니다. 다시 말하여, 이념은 사물이나 현상이 있다고 말할 때와는 다른 의미로 있으며, 만약 '있다'는 말의 의미를 사물이나 현상에 국한해서 사용한다면 이념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념이 없다면 우리의 인식 행위가 설명 불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이념(즉, 아프리오리)은 형이상학을 과학의 그것과 같은 확고한 기반 위에 올려 놓으려고 한 칸트의 노력이 이룩한 최종적 결실입니다. 전통적 형이상학자들처럼 이념을 아무런 근거 없이 독단적으로 제시하는 한, 형이상학은 학문이 아니라 몽상가의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형이상학이 학문으로서 확고한

기반을 가지려고 하면, 이념은 개념과 동떨어져서 그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있다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여, 개념을 획득하는 행위로서의 인식이 일어난다는 사실-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해 낸 것이어야 합니다. (p.287)

칸트는 개념과 개념의 의미가 최고도로 달한 상태로의 '이념'을 서로 분리하지 않고 설명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와 같은 해석에 의하면 삶을 설명한 개념은 '삶의 의미가 최고도로 실현된 상태'로의 이념을 이면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이점에서 삶이라는 개념에는 논리적 가정으로 이념이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니체의 내재에 대한 해석은 초월자가 개념에 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에 의미를 갖는 것이지, 개념과 따로 있는 초월자라면 당연히 허구로 취급될 수밖에 없으며 초월자를 염두에 두지 않은 내재란 진리의 기준 없이 진리를 논하는 셈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니체가 그토록 이사람저사람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그 진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고 있는 질문은 개념에 논리적으로 가정되어 있는 것으로 추구해야 드러나는 것이지 어딘가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니며 그러하다고 해서 개념에 저절로 드러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을 동시에 하는 내재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칸트의 개념과 이념의 구분은 이와 같은 실험철학으로서의 해석으로 우리에게 왜 개념이 신에게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될 수 있게 해주는가를 설명해주며 동시에 지금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대지의 삶을 무궁무진한 의미로 살도록 해준다. 이러한 의미 이상 니체가 말하는 내가 살고 있는 대지의 삶을 긍정하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만약 대지의 삶을 긍정하는 데에 급급하여 개념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삶을 채우라는 말을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대지의 삶은 대지를 폐허로 만드는 니체가 그렇게도 혐오하는 사육이 들끓는 삶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볼 때 니체의 개념비판이 개념의 이면으로의 아프리오리를 인정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진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개념마다 그 개념이 초월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은 이름뿐으로 개별자를 강조하면서 개별자 자체가 갖는 내재성을 말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자만 있어서는 그 개별자마다의 진위를 파악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에서 그 기준을 개별자에게 돌리는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기준은 무언가를 사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준 역할을 할 수 없다. 이 말은 그런 기준은 없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니체가 개념을 진짜 알려는 것의 시체라고 했을 때 개념으로 다 말할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만약 니체가 말하는 내재성이 초월성을 배제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남는 것은 시체뿐이 되게 된다.

그러나 니체가 개념이 다이며 그 의미는 개념으로 끝이다 라는 주장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개념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니체가 개념파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개념만을 비판하였다면 그러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니체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개념파괴, 개념부정이다. 개념파괴를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개념이라는 것이 무의미하니 개념을 없애자는 말로 파괴라는 의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한다. 니체는 진리나 신이나 보편자나 모두 실체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 열렬히 비판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념화되는 순간 이미 그것이 아닌 것이 된다는 점에서 개념화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하다고 해서 그런 것은 없으니 탐구할 수 없다거나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니체가 기존의 개념들을 송두리째 자신의 비판의 재료로 사용하면서 파괴하는 행위 자체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니체는 개념을 마치 무슨 요리의 레시피처럼 취급하는 데에 대하여 비판을 가한 것이며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각 개념은 그 개념이 표현하고자하는 의미가 있으며 그 의미는 요리 레시피 처럼 한번 하라는 대로 하고 말면 되는 것이 아니다. 니체는 대학교육을 비판하면서 『반시대적 고찰』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철학에 따라 살 수 있을지를 시도하는 철학비판은 결코 대학에서 가르칠 수 없다. 그것은 언제나 말에 대한 말의 비판이다. 삶을 통한 경험도 없는 젊은이의 두뇌 속에 말로서 50개의 시스템과

그에 대한 50개의 비판이 나란히 서로 뒤섞여 보관되어 있다고 상상해보라-이무슨 대혼란이고 황폐함이며, 철학교육에 대한 조롱인가! 실제로 철학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철학시험을 위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KGW 2, 483)

의미라는 것은 성격상 끝없는 추적을 요한다. 한번 알고 나면 마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는 순간 모르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니체가 개념을 비판하는 것은 개념과괴를 짝으로 하였을 때 그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게 볼 때, 우리가 니체의 개념비판을 본인이 개념을 보편자가 내재한 것으로 보았는가 아니면 개별자뿐으로 해석했는가를 우리가 해석하기에 앞서, 개념과괴를 짝으로 한다는 점에서 진리를 추구하고자하는 것, 개념의 진위를 가리는 작업에 몰두하였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한다. 개념을 가지고 진리추구를 실천으로 살던 사람이 진리란 없다는 말을 하고자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다만 진리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점에서 니체가 한 그야말로 ‘말’을 가지고 니체가 한평생 실천한 것마저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니체 본인은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후세에 본인의 글들로 인하여 신은 죽었다는 말을 필두로 하여 진리란 없다는지 보편자는 없다는 등 자신의 삶과는 다른 말들을 쏟아낸 것은 분명하다. 그 말들 중에는 그야말로 말만 떠돌다가 결국은 니체가 말하려고 했던 의미는 사라지고 말만 남게 된 것이라고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니체를 읽는 독자로서는 니체의 말을 정확하게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니체의 말이 그렇게 해석되어서는 니체가 하려던 의미와 무관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니체를 아무리 사랑하는 독자라 하더라도 그 비판을 먼저 니체의 말에 두지 않고는 진짜 니체가 말하려는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흔히 니체의 내재성철학이니 생성철학이니 하는 것들의 의미 또한 니체가 말하려는 것의 의미를 드러내려면 니체가 하는 말을 파괴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니체가 개념을 비판하는 이유로 삶을 대안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면서 니체의 삶철학과 니체의 개념비판의 관련을 드러내었다.

위에서 비판한 바와 같이 개념이 진짜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에서 진짜 말하려는 것을 삶이라고 하였을 때 삶은 그 의미를 추구하면서 드러나는 것이지 살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삶을 설명하는 개념들에는 그 의미가 붙박여 있는 것으로 그 의미를 모두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여서 개념 말고 다른 것으로 삶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혹자는 삶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고 반론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는 것 또한 어떠한 관점으로 삶을 사는 것이지 그냥 사는 것은 아니다. 니체가 비판하듯이 필요에 얽매어 허덕이며 사는 삶은 동물적인 삶에 지나지 않는 것(니체 1874: KGW 2, 438-9)이다. 니체의 삶철학을 강조하는 데에 있어 삶을 삶의 의미와 분리하여 따로 강조함으로써 삶을 삶답게 해주는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야말로 니체가 가장 혐오하는 ‘말에 옹매여 주장하고자 하는 의미를 없애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분명히 니체가 개념이 다가 아니라는 말을 한 것은 의미 있지만 개념을 통하지 않고는 개념이 진짜 말하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말도 동시에 하였다면 개념 아닌 다른 수많은 것들이 그 대안으로 대입되는 혼란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하다고 해서 니체가 ‘개념을 통하지 않고는 진짜 말하려는 것을 말할 수 없다’고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개념으로 이 세계를 파괴하여 새로 세우겠다고 달려들어 몸소 그 시범을 ‘개념’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념을 비판하는 것을 개념이 아닌 다른 대안을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개념의 이면에 담겨있는 무궁무진한 의미로 볼 것인가는 개념의 가능성을 이용해 하늘로 날아오를 것인지 아니면 개념의 한계에 실망한 나머지 개념을 팽개치고 더 더욱 땅에서 헤멜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흔히 하는 말장난으로 취급될 것이 아니다. 이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개념만이 아니라 상징이라는 신에게 가는 매체가 존재한다. 그러하다는 점이 개념의 중요성을 희석시키는 것은 아니다.

#### IV. 결론

니체가 기존의 개념을 비판하면서 말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니체의 철학은 삶의 철학이라고 명명된다. 그러나 개념을 비판하면서 삶을 진리의 기준으로 제시한다고 해서 이 때 삶이 진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에 삶이 무엇인가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이며 (보수적인 삶, 진보적인 삶 혹은 순종적인 삶, 욕구를 실현하는 삶 등 삶을 수식하는 의미들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삶 자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숨을 쉬는 것이 삶인가? 아니면 의식주가 삶인가?) 삶과 개념이 어떠한 관련을 맺는가 또한 규명되어야 하는 것으로 남는다.

니체가 개념이 진리가 아니고 삶이 진리라는 말을 하는 것은 개념과 삶이 무관한 것이라면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삶철학은 사람들이 개념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데에 대하여 개념이 아닌 삶에 진리의 기준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하다면 개념과 삶이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기에 개념이 진리가 되려면 삶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인가? 개념은 삶을 추상하여 표현한 것이다. 추상이라 함은 삶에서 그 의미만을 추출하여 개념이라는 매체로 표현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추상이라는 활동에 의하여 개념화된 것은 삶의 모든 것을 추상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하다고 해서 추상하는 순간 삶과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며 설명하려는 삶의 부분을 의미로나마 표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추상이 추상이전의 것을 온전하게 그대로 드러낼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것이라고 하면 추상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삶으로 추상하여 표현된 개념으로 볼 때 삶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으로, 그러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 자체' 그러한 것이 따로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달이 떠 있어도 달을 달로 보아야 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본다면 삶을 추상한 개념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의미를 깊게 하고 넓게 한다는 점에서 삶과 개념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니체가 개념을 비판하면서 삶을 강조하는 것은 둘 사이의 관련을 부정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개념과 삶의 관련을 부정하면서 삶을 강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념과 삶의 관련은 인정하더라도 삶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개념의 무엇을 부정하는 것인지 또한 살펴보아야 한다.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는 말을 하려고 한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하여 한 가지 대답으로 니체는 자신의 주장을 무엇을 통하여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니체가 파괴하고자 하는 것도 개념이며 그 개념을 파괴하는 것도 또한 개념을 통해서이다. 따라서 개념이 무의미한 것이라면 니체 자신이 개념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개념을 파괴해야 했던만 그러하지 않고 니체는 개념을 가지고 기존의 개념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니체가 비판하는 개념은 개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니체가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념과 삶의 관련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살펴볼 수 없다. 개념으로 아무리 진리인 것을 말한다고 하여도 삶이 이를 진리로 관정해 주지 않으면 개념과 삶은 아무런 관련을 짓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개념을 획득하는 것이 삶을 실현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마치 개념획득이 삶을 실현하도록 해주는 것인양 착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삶을 추상한 것이 개념이라는 점에서 개념과 삶은 무관한 것일 수 없다. 개념과 삶이 무관한 것이라는 주장은 개념이 삶의 실현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논리적 관련마저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당연히 이제 개념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삶의 실현의 도구로 들이대게 된다. 이 때 개념대신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들은 삶의 의미와는 무관한 것들로 삶의 유용성을 추구하

는 것들로 채워지는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개념과 삶의 관계를 개념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관련지으려는 것은 삶의 의미의 거세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올바른 관련이 아니다.

그러하다면 개념과 삶의 관련을 어떻게 짓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개념획득이 삶으로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무관하다고 해서 안 된다. 왜냐하면 개념이라는 것이 삶을 추상하여 표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니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개념이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삶으로 실현되는 일은 자동으로 보장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경우 개념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동시에 해야 한다. 우리의 삶은 개념이라는 추상성으로 인해 삶의 구체성 사이의 갭이 넓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갭은 추상성을 없앴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은 구체적 삶뿐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의미를 추구함으로써 메워 나가야 할 것으로 존재한다. 그러하다고 해서 이러한 경우 개념과 삶이 무관한 것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삶의 의미를 추상하여 표현한 것이 개념이라는 점에서 남이 해놓은 표현의 결과인 개념은 나의 삶에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의미탐구라는 과정을 필수로 한다. 이는 결국 타인이 추상해 놓은 개념으로서의 삶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이 하나가 되어야한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한다. 이 때의 의미탐구를 니체는 개념파괴라고 한 것이다.

삶철학을 통해 본 삶이라는 개념비판의 주제는 삶이라는 개념에 보편자(신)로서의 삶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전달의 방법적 원리로서 개념파괴의 문제이다. 신의 속성상 신은 우리가 직접 대면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신을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으며 개념이라는 것은 바로 (논리적 가정으로 존재하는) 신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일을 통해서 밖에는 알 수 없는, 신에게 다가가는 간접적인 통로로서의 매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 만약 니체의 개념파괴가 개념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자는 말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삶의 의미 자체를 추구할 가능성인 것을 파괴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는 신에게 다가가는 통로인 개념을 없애자는 것으로 살신의 길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념파괴가 개념이 삶으로 실현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실현, 즉 삶의 의미 추구를 위해 논리적 가정을 추구하자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는 개념파괴는 개념탐구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는 개념이 신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신을 향해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신의 부활을 위한 길이 된다.

## 참고 문헌

니체저서 약자 및 영역본

- GT — Die Geburt der Tragodie (The Birth of Tragedy), 1872; in W. Kaufmann (trans. & ed.), 1992.  
M — Die Morgenrote (The Dawn), 1881; B. Smith (trans.)(2011), The Complete Works of Friedrich Nietzsche Vol. 5, Stanford University Press.  
FW — Die Frohliche Wissenschaft (The Gay Science), 1882; W. Kaufmann (trans.)(1974), New York: Vintage Books.  
Z — Also Sprach Zarathustra (Thus Spoke Zarathustra), 1883-1885; W. Kaufmann (trans.)(1954), Penguin Books.  
A — Die Antichrist (The Anti-Christ), 1895; R. J. Hollingdale (trans.)(1968), Penguin Books.  
EH — Ecce Homo, 1908; in W. Kaufmann (trans. & ed.), 1992.  
WM — Der Wille zur Macht (The Will to Power), Posthumously Published Selection from Nietzsche's Notebooks; W. Kaufmann & R. J. Hollingdale (trans. & ed.)(1967), New York: Random House

니체전집 (한국어 번역본)

KGW 1-22 (2012). 니체전집. 책세상.

- 강용수(2012). 신의 죽음과 존재이해. 존재론 연구 29. 317-348.  
김현태(2003). 철학과 신의 존재. 철학과 현실사.  
다케다 세이지(2001). 니체 다시 읽기. (윤성진 역) 서광사.  
박상철(2015). 니체, 신과 교육을 말하다. 학지사  
박찬국(2013). 니체와 하이데거의 진리 개념의 비교연구. 존재론 연구 31. 2013. 4. 69-102  
백승영(2005).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책세상  
손경민(2008). 니체의 '힘에의 의지': 자유의지와 결정론을 넘어서. 대동철학 45. 213-234.  
신춘호(2010). 교육이론으로서의 칸트철학. 교육과학사  
신춘호(2012). 심성함양 매체로서의 개념과 상징: 함양과 궁리. 도덕교육연구 24-3  
신춘호(2005). 칸트 윤리학에 비추어 본 도덕과 교육의 성격. 도덕교육연구 17-1. 85-105.  
양태규(2011). 니체, 루카치, 하이데거와 언어. 독어교육 51.  
이상엽(2003). 삶과 학문. 철학과 현상학 연구 21, 441-464,  
이상원(2007). 니체의 '힘의 의지'사상에 관한 신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이흥우(1998). 교육의 목적과 난점. 교육과학사.  
이흥우(2014). 성리학의 교육이론. 교육과학사.  
이흥우(2006). 대승기신론 통석. 김영사.  
임병덕(2014). 키에르케고르와 니체: 부정의 교육적 의미. 도덕교육연구 26. 95-116.  
정혜진(2016). 소크라테스의 윤리학. 도덕교육연구 28-1. 41-60.  
코플스턴(2013). 칸트. (임재진 역). 중원문화사.  
Boyd, W.(1952). The History of Western Education(6th ed.). London: Adam & Charles Black. 이흥우, 박재문, 유한구(역)(2008). 서양교육사(개정·증보판). 교육학 번역총서 4. 교육과학사.  
Cooper, D. E.(1991). Authenticity and Learning. Nietzsche's Educational Philosophy. Hampshire: Gregg Revivals.  
Copleston, F. C. A history of Philosophy. London: Burns, Oates& Washbourne. (1960)  
Kaufmann, W.(1974). Nietzsche: Philosopher, Psychologist, Antichrist(4th ed.). Princeton University Press. (1st ed. 1950)  
Kaufmann, W. The Portable Nietzsche, translated by W. Kauffmann. Penguin books. 1976.

- Kaufmann, W. Basic Writings of Nietzsche, translated by W. Kauffmann. The Modern Library. New York. (2000).
- Kaufmann, W. On the Genealogy of Morals, Ecce Homo. translated by W. Kauffmann. Vintage Books Edition. Random House (1989).
- Nietzsche, F. (1873). Untimely Meditations. translated by R.J. Hollingdale.(1997) edited by Daniel Breazeale. Cambridge university press.